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다한불교법사회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사이버 카페'(cafe.daum.net/bupsa)를 개설했다. 법사회회를 한 달마다 보내는 공지사항이나 활동을 공유하기에는 아무래도 신속성이 떨어진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음달 법사회회에 실릴 내용에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드자

미리 볼 수도 있고 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올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회원들끼리 현장포교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나누고 새로운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볼 수도 있다. 또 서로 필요한 자료를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교환하기도 한다. 운영을 맡고 있는 정승모(법사회회 편집장) 법사는 "아직은 초기단계라 전체 회원사 600여명에 비해 참여 회원의 수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는 회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합선 및 수행에 관한 글모음 홈페이지인 '선객' (http://sungak.buddhism.org)을 방문하면 선 사들의 법문과 선 수행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볼 수 있다.

'사이버 지대방' 클릭 특이 사이트에서 도반과 이메일 대화 운영하고 있는 '용어 및 교리 문답'과 '선객 게시판'에는 불자뿐 아니라 학인스님들이 풀러 선 수행과 교리에 대한 의견을 올리기도 한다. 가끔은 가벼운 논쟁이 오가기도 한다.

인터넷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상공간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불교대학 동기생끼리 사이버 동창회를 만들어 졸업 후에도 서로 메일을 교환하며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같이 수업을 받은 불자들이 사이버 동호회를 만드는 일은 자연스런 하나의 현상이 돼버렸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운동은 아직 젊은 불자들이 중심이다. 포교와 수행을 담당하는 스님이나 법사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아직은 생경하다. 한때 학인스님들이 인터넷 지대방을 만들어 수행에 대한 글을 올리며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지만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 고금선원, 삼원선원, 우곡선원 등 사이버 선원이 10여곳 있지만 주요 방문객은 불자다. 인터넷 시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고 손 놓고 있기보다 이제 '사이버 지대방'에 모여 메일을 주고받으며 도반을 만날 때가 됐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종교대표 연내 방북

박지원 문화장관 "북측과 합의"

29일 남북 장관급 회담서 일정논의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7대 종교대표들이 연내에 북한을 방문한다. 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내 금강 사찰 복원 뜻을 밝힘에 따라 그 동안 인도 지원, 법외 봉행이 주었던 남북불교교류가 문화유산 복원 협력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지난 5~12일 7박8일의 일정으로 언론사 사장단과 함께 북한에 다녀온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14일 "이번 방북에서 국내 7대종교 대표의 북한 방문을 추진하기로 북측과의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하고 "문화부 총무실에서 7대 종단과 방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북측과 접촉해서 연내에 방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방북 기간중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 강승수 문화상과 별도로 만났으며, 종교대표의 방북 합의는 박 장관과 김 아·태 위원장과의 의견조율 후 김정일

위원장에게 받아들이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화부 총무실은 17일 조계종 사회부장 양상남 등 7대종교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가졌다. 총무실 박광우 과장은 "이 날 회의에서 방북 시기, 규모,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북측과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논의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측과의 협의는 이달 29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교대표들의 방북과 함께 북한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금강 내 사찰 복원 뜻을 밝혀 남북불교교류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김위원장은 12일 평양 특린관에서 가진 남북 언론사 사장단과의 대화에서 "금강산에 있는 절들이 다 부서졌다. 정몽헌이 내금강 관광권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절들을 다시 잘 지어주

"남북 해빙 가속화"

정대스님, 방북 환영 논평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8일 남북 종교대표 북한 방문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금강산 사찰 복원 언급에 대해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대스님은 "자비와 사랑을 근원으로 하는 종교인들의 만남과 교류는 반세기 동안 얼어붙었던 남북의 해빙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대스님은 "금강산 사찰 복원"과 관련, "우리 불교계는 남북의 정부당국과 상호 협력을 통해 금강산 사찰 복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또 "우리 불교계는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민족의 평화와 화해,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아들아... 어머니! 16일 위귀할오를 상봉장에서 북한의 김일성대 교수 조주경씨(68)에게 어머니 신재순씨(88)가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뺨을 부비며 50년 만에 식이고 있다. 어머니 신재순(법명 수도화)보살은 부산 내일정사에서 살며 20년간 아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왔다. 서울과 평양에서 아산가족이 만나는 날 북한의 계관사인 오영재는 노래했다. "어머니 눈물입니다... 아, 할복입니다... 피눈물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헤어지지 않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남-북 불자들 8·15 동시법회

"통일보살 되겠습니다" 서원

남과 북의 불자들이 8·15 동시법회를 진행하고 "조국과 후세 앞에 부끄럼없는 통일보살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남측의 불자들은 광복 55주년을 맞아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 기원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25개 종단 대표와 신도, 민주당 연동회장 김기재 의원, 자민련 김홍호 부총재, 박준영 청와대공보수석 등 정·관·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통일기원 타종, 헌동·연화, 북녘·남녘 불자들에게 보내는 통일메시지, 법어, 김대중대통령 축하메시지, 민족화합 선언문, 남북공동발원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 포교부장 정연스님이 대독한 '북녘의 불자들에게 보내는 통일메시지'를 통해 "민족의 화합과 상생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위해 원없이 정진해 마침내 통일된 정국에서 민족화합의 대법회를 봉행하자"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은 남북불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북녘의 불교도들은 역사적인 8·15 남북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을 위해 신명을 다 할 것"이라며 "오늘과 같은 선업을 쌓아나간다면 겨레의 숙원인 통일대업은 기필코 성취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안국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대화사

와 민족화합선언에서 "통일불사는 남북한 불교도들에게 부여된 절대 절명의 사명"이라며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한마음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진각종 총무원장 성호대정사가 낭독한 남북불교공동발원문을 통해 "민족의 자주와 동포애, 신화로 8·15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굴림없이 용맹정진하겠다. 조국과 후세 앞에 부끄럼없는 통일보살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축하메시지를 보내 "8·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후속조치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남북 불교도의 노력과 정성이 모여 앞으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촉진되고 평화 가 정착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묘향산 보현사와 평양 광법사를 비롯 60여 사찰에서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봉행했다. 일본에서도 11일 조총련계 사찰인 오사카 통국사에서 만다라 조총련 진영의 승려와 신도 50여명이 모여 8·15 경축법회를 봉행했다.

정성운 기자

8·15 이산가족 상봉에 부처

겨레의 포옹, 못다 부른 통일의 노래

저녁에 지난 며칠, 이 땅에서 무슨 일 있었는가
삼천리 길목마다 풍뎡을 숙연하고
오가는 명굴마다 눈시울이 붉었으니
저녁에 지난 며칠, 이 땅에서
어떤 일 있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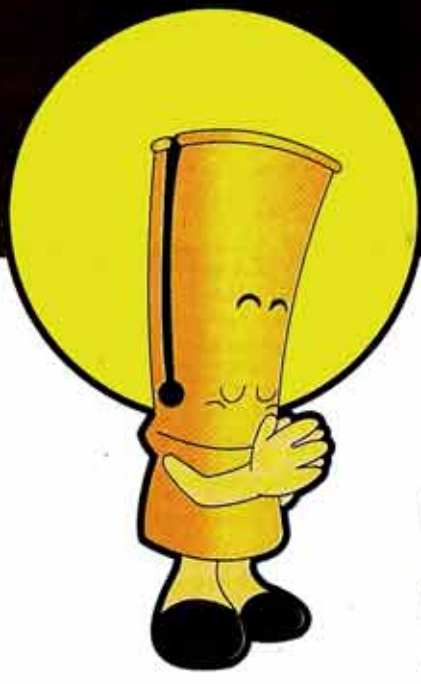
인연이 차는구나, 세월 하루 넘치는구나
만두에서 한리까지 굶지않 이념의 풍기
일음으로 흐려도 풍신의 법질 벗기느니
오천년 일음이 보이는구나, 세 하늘이 열미치는구나

저녁에 필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만두에 언덕아래도 광화문 길모퉁이에도
이 지난 카르수들 손짓하며 말들하느니
흔들의 음음에도 흑천선 횡조양 평에도
신심은, 일침순물 눈을 지루 미끼거니

아아 우리는 보았다, 어찌하여 우리가 세말인국인가를
어찌다 힘센 이웃들에게 속아
준돈 땅 갈로 갈라 민족난을 삼았어도
천상 두 손에 준물 꼭 친 봉선화 천수인 것을
우리는 또 보았다, 광 속 같은 3억 4천
치방이들 살고 황태어를 끓여
남북 하늘 오가는 서러운 기러기 배
어찌하여 이 산하에 연세없이 피는가물

하늘이여 땅이여 이 날을 주목하시라

장 지 현 (시인·진각불자재단 사무국장)



"깨침이 인사드려요"

진각종을 상징할 죽비캐릭터 공식명칭(기본형)이 '깨침이'로 결정되었습니다. 도 가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만다라 패밀리'를 선정하고 아들은 '각이', 딸은 '진이'로 죽비캐릭터 가족구성원의 이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죽비캐릭터 공식명칭으로 결정된 '깨침이'는 "누구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 만다라 세계로 나아가기를 서원 한다"는 뜻입니다.



- 당선자 명단
- 깨침이·효명정사(화천심인당 주교), 수해정사(김상심인당 주교), 김유승(강원도 춘천시 춘천우체국 사서함 69-444), 정수형(서울 동작구 상도2동)
 - 각이(아들), 진이(딸)-지법인(LA 불광심인당 신교도)
 - 만다라패밀리-김상민(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덕현(남도심인당 신교도)